

## IV RESOURCE 14 FOREWORD for People in Color Purple in Korean 보랏빛사람들

### People in Color Purple

#### 추천하는 글 (보랏빛사람들)

정득실 목사

#### 나의 사랑하는 김진숙(Jean Kim) 목사님

‘정목사, 이 책 읽어봐 너무 좋아서 두권 샀어. 아마 정목사 이 책 좋아할 걸.’

목사님 하고 나는 좋은 책이면 서로 사서 여러차례 읽기를 권했다. 읽고는 연신 탄복을 하며 나누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목사님은 Assisted Living Senior House 에 들어가 계신다.

목사님 연세가 올해로 85 세, 내 나이 57 세. 아들도 한참 어린 막내 아들 뺨이다.

목사님은 우리 나라 진보의 첨단이라고 하는 한신대학을 나오셨고 나는 보수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총신대학을 나왔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온 두사람이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 물론 목사님을 따라 가려면 지금부터 맨발 벗고 뛰어도 어렵도 없다.

목사님의 홈리스들에 대한 헌신, 일에 대한 집중력과 열정, 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을 두루 섭렵하신 총명함, 탁월한 지혜와 혜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출중한 영어능력까지.

나이 젊은 것, 건강이 조금 받쳐주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다.

23 년전 우연히 만나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목사님과 함께 동지선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은 현장에서, 나는 이사장으로 사역을 해왔다.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내가 현장에서 뛰고 있다. 뒤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현장에서 뛰어보니 어렵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이 많이 생각한다. 그때 그 일을 당하셨을 때 목사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목사님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지금은 힘들면 전화라도 하지만 안계시면... 아마도 그때는 목사님의 자서전 ‘보랏빛 희망’을 펼쳐 볼 것 같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갈수록 목사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도 내 차 안에는 홈리스들에게 나누어줄 온갖 물건들이 가득하다. 한번씩 꼭 필요할 때 없으면 다음에 사서 차에 꼭 챙겨놓는다.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즘 열심히 사역보고서를 쓰고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내시는지, 또 전화는 왜 그리 자주하시는지, 긴급한 일들은 왜 그리 많이 생기는지, 그때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온통 불만 투성이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하루에 한개씩만 보내려도 해도 때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역을 하다 벽에 부딪치면, 아마 나는 현재 목사님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 ‘보랏빛 사람들’을 보게 될 것 같다. 그 책 안에 목사님의 생각과 사역과 삶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나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교과서와 같은 분이시다. 뭘 일을 자꾸 만드시냐고, 적당히 하시라고 꿈시렁 거리면서도 닮아가고 있다. 그때는 불평을 많이 했지만, 마음 밑바탕에서는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나는 목사님이 걸어오신 삶의 발자취가, 당신의 사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진정 소원한다. 그리고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나와 같은 사역자들이 이땅에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끝으로 목사님이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Love as ever,’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동지선교회 실행총무 정득실 목사

## FOREWORD - People in Color Purple (Korean)

### 추천하는 글 (보랏빛사람들)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권준

김진숙 목사님의 50년 사역의 자취를 보여주는 “보랏빛 사람” 책을 출간하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평생을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시며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애써 오신 김 목사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끝내고 쉼과 재충전을 받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일하는 공간, 피난처 라는 개념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시대에 물리적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이 더 할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김목사님의 “보랏빛 사람” 에는 창조 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흠리스가 된 이후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겪게 되는 많은 흠리스들의 삶을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서 흠리스가 되어지는 경우도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과 게으름 때문에 집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미국의 많은 흠리스들은 실직과 질병등 다른 이유로 인해 거리로 나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랏빛 사람” 을 통해 우리에게 흠리스들을 알게 하셨다면 그들의 영적, 물질적 구원과 구제를 위해 일하라는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는 말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랏님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김진숙목사님의 많은 노력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을 받고 구걸이 아닌 실질적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줌으로서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바꾸어 놓으려고하는 김목사님의 노력은 정말 값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진숙 목사님은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집을 가진 분 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랏빛 사람”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 견고한 집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FOREWORD - People in Color Purple (Korean)

### 추천하는 글 (보랏빛사람들)

김진석 목사 (Northwest Coast Presbytery 부총무).

김진석 목사님은 평생 홈리스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그들의 옹호자이심에 틀림이 없다.

그의 노년에 극히 열약해진 몸을 이끌면서도 홈리스를 향한 그의 열정은 지금도 활기 왕성한 청년에 비할바 아니다. 홈리스를 향한 그의 관심은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로 부름 받으신 이후 홈리스들을 위한 수고를 다하셨으며, 특히 그들을 돕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셨다.

먹지 못하고 잠자리가 없는 무력한 그들 이면에는 우리 공동체의 병든 가치관과 늘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지어놓은 조직체의 억눌림이 원인임을 본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언제나 억눌림을 당한 자리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본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홈리스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서 빼앗김을 당한 홈리스들 자리에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홈리스를 향한 믿음의 열정은 성경 전체를 통해 홈리스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는다.

“보랏빛 사람들”은 김목사님의 참된 신념과 믿음을 담은 소중한 글로서, 주의 깊게 읽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장과 사역을 보게 될 줄 믿는다.

## FOREWORD - People in Color Purple (Korean)

추천하는 글 (보랏빛사람들)

이은주 박사 Rev. Dr. Unzu Lee

목사님 책에서 잠깐 목은적이 있는데 그 때 목사님이 특유의 웃음을 웃으시며, “내 별명이 올인(All In)이야”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정말 목사님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려내는 별명이네”라고 느꼈다. 별명 그대로, 내가 아는 Jean Kim 목사님은 평생을 그 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사셨다.

보랏빛 사람들에서 나는 또 한 치의 변함없이 올인하시는 김진숙목사님을 만났다.

제목 자체가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책은 집이 없어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만에 대한 책이 아니다. 물론 저자는 집이 없어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독자로 하여금 많은 각도에서 보게하여 우리의 편협한 고정관념을 깨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독자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도와 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홈레스네스를 보편화시킨다. 저자는 ‘홈’과 ‘홈레스네스’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우리 모두가 애통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보랏빛 사람 홈레스인 것을 보게한다. 그리고 보랏빛사람이란 하나님의 집에서 유리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살 수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미국장로교는 목사를 Teaching Elder(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했듯 저자가 얼마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진 선생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한글로 쓰는데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얼마나 한인교인들과 교회도 사랑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르침에 올인하신다. 홈리스 문제란 빈곤의 문제이고,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가르치기 위해 저자는 미국의 홈리스 현황과 그 원인들을 파헤친다. 대부분 홈레스에 대해 편협한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대응을 해온 한인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의식과 믿음과 행위를 비판적인 시각과 신앙의 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홈레스네스/빈곤에 대해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초대교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가난하고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어떤 선교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 온갖 자료와 성서학자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가르친다. 그리고 이 세상이 홈레스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 되는 비전을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저자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통전적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목사인 저자가 성령의 날개를 타고 23 곳에서 선포한 하나같이 진주같은 설교문을 끝으로 아쉽게 끝난다. 이런 설교는 현장의 실체를 온몸으로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다. 나는 목사님의 50 여년간 집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려고 씨름한 경험이 농축된 설교문을 읽으면서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했다. 김진숙목사님을 오래 알아왔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위트가 많으신 분인 줄 몰랐다. 정말 감동이었다. 한 번 읽어 보시라! 웃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감동하실 것이다!

이 책은 김진숙목사님이 우리에게 쏟아 붓는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어찌 받지 아니할까?!

Rev. Dr. Unzu Lee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Presbyterian Church (U.S.A.)  
Former Associate for Leadership Development for Presbyterian Women and  
Coordinator for Women's Advocacy, PC (USA)  
현재 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회 동아시아 지역 리에이존;  
1994-2014: 미국장로교회 여성 지도력개발 총무  
미국장로교회의 여성옹호 코오디네이터

---

## 16) 8 People in Color Purple

### 『보랏빛 사람들』 축시

김영호 시인(숭실대 명예교수)

『보랏빛 사람들』은 작가 김진숙목사님의 영혼의 거울이네.  
김 목사님의 영혼의 꽃밭이네.  
목사님의 영혼은 성령을 입은 긍휼의 사랑이네.  
그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의 정신이네.  
이 거룩한 영혼의 책은 흠리스들의 생명을 살리신 보랏빛 천사  
김진숙천사님이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쓴 눈물의 시편이네.  
이 책 속에 천사님의 숭고한 긍휼의 사랑이 배어있네.  
글 속에 흠리스들과 함께 우는 천사님의 눈물이 있네.  
흠리스들의 등지를 위해 흘리신 천사님의 땀방울이 고여있네.  
흠리스들의 직장과 배움의 길을 열며 흘린 피땀이 고여있네.  
흠리스들의 아픔과 상처 고난과 애통을 함께 나누는  
천사님의 삶과 혼이 담겨있네.  
흠리스 한사람이 곧 예수님이었네.  
흠리스들이 글을 읽고 하늘을 우러러 찬송을 부르리라.  
흠리스들이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보리라.  
만인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리라.  
예수님도 감동하사 눈물을 흘리시리다.  
하나님도 감동하사 눈물을 흘리시리다.

## 보랏빛여성

김영호 시인 (숭실대 명예교수)

시애틀을 천국으로 건설하는 사람이 있다.

“보랏빛 여성”, 김진숙 목사이다.

“노숙 근절”(End Homelessness)이 새겨진 보라색 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녀의 눈빛도 보랏빛, 음성도 보랏빛, 얼굴도 보랏빛이다.

등지 선교회를 세우고(이경호 옥민권목사와 함께) 노숙자들을 목양한다.

노구의 몸(77 세)으로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다닌다.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노숙자 그리스도를 신으로

존대하듯 노숙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집을 잃은 양들에게 육신의 등지와 영혼의 등지를 지어주고

가족을 잃은 자에게 처자식을 만나게 하며 실패한 자에게 희망을 먹인다.

수술 후 길바닥으로 나 앉은 자들을 따듯한 방에 눕혀 간호를 하고

상처 많은 양들에게 위로와 자존심을 먹인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먹이고 추위 떠는 자에게 담요 방한복을 입힌다.

목욕을 시키고 빨래를 돕는다.

밥상을 차려 굶주린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예배를 보고 찬송과 기도를 한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므로 써 그들이 목자와 봉사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천국을 본다.

등지 선교회의 이 노숙사역의 동기는 우리 한인교포들이

이 땅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하기위한 것이다.

주류사회의 도움 없이 한인사회 기관들과 교회, 교포들의 후원만으로

불우한 사람들의 갱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거룩한 노숙자 섬김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성업이다.

등지의 임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한인 후원자들이 보라색 천사들이다.

하늘이 선택한 한 “보라색 여성”이 한인들을 보라색 천사로 만들었다.

하여, 우리 한인 교포사회가 레인니어산보다 거룩하고

교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애틀의 자연보다 아름답도다.

“보랏빛여성”이 꽃보다 아름답도다.